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

전남도민일보

제 3843 호 대표전화 (062) 227-0000 jndomin.kr (음력 10월 05일)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하랑 A+
전국최고 분양대행 선두주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3, 4층 T.062)673-29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배추값 하락…수급안정 대책 추진



배추 가격 하락에 대응한 수급안정 대책 추진 모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출하 정지 지원·농업 수입 안정보험 등으로 경영비 보전

농협과 판촉전·김장 재료 할인 행사 등 소비촉진 활동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김장철 배추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출하정지 지원과 작목전환, 소비 촉진 등 자체 수급안정 대책을 정부와 연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월 상순 현재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1천9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평년보다 32% 낮은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올해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생산량이 평년보다 각각 3%,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김장철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 대책과 연계해 배추 출하정지(시장격리) 3만 톤에 사업비 58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농산물 수급조절사업(농산물 안정생산 공급지원사업)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해 경영비 이상을 보전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로컬푸드·하나로마트 판매 촉진 행사와 김장재료 할인 행사 등 소비 촉진 활동도 추진하고, 김장철 이후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추가 시장격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적 김장 소비 분위기 조성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 원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최대 40%), 가을배추 1만 톤 수매·비축과 겨울배추 추가 비축 검토, 시장격리 3만 톤, 농협 계약재배 확대, 김치업체 할인 공급과 수출 지원 등을 담은 배추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배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시장격리와 소비 촉진을 통해 수급안정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생산부터 출하까지 체계적 수급 관리를 통해 농업인이 정성껏 재배한 배추가 제값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배추 공급 과잉에 대비하고 적정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260ha 규모의 배추 작목전환사업에 사업비 12억 원을 확정하고 추진 중이다.

아울러 작목전환사업을 통해 배추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농가의 작목 선택 폭을 넓혀 안정적인 농업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농가에는 대체 작목 재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특정 품목에 생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배추 수급 상황과 시장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생산량 조절과 출하 시기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역 농협과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가격 하락 대응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는 중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 전·현직 카마스터와 함께 소아암 환아에 후원금 전달

현대자동차가 전·현직 카마스터와 함께 소아암 환아를 위한 나눔을 이어간다.

현대자동차는 11일(수)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 위치한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현대 호프 온 휠스 매칭그랜트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목)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윤효준 전무, 국내지원사업부장 김은희 상무, 국내사업지원실장 김경조 상무,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와 기부금 후원에 참여한 전·현직 카마스터가 참석했다.

'현대 호프 온 휠스 매칭그랜트'는 현대차가 글로벌 대표 CSR 프로그램인 '현대 호프 온 휠스'와 국내 후원금 조성 사업 '판매왕 매칭그랜트'를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매칭그랜트는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에 기업이 일정 금액을 더해 후원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현대차는 전·현직 카마스터들의 기부금에 회사의 출연금을 더해 소아암 환아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현직 카마스터 91명이 참여해 3,106만 원을 기부했으며, 현대차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해 총 6,212만 원의 후원금을 초록우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소아암 환아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카마스터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사의 지원이 소아암 환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소아암 환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임직원과 판매 현장 구성원이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카마스터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현대차의 매칭 기부가 더해지면서 나눔의 규모도 확대됐다.

현대차는 이번 후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